

프란치스칸 100 주년

프란치스칸 가족 총회는 2022년 1월 모든 프란치스칸들에게 앞으로의 프란치스칸 100년 준비란 중요한 계획을 공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https://ciofs.info/wp-content/uploads/2022/09/Centenario_ENG_def.pdf.pdf.

우리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직업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과 같이 우리 회는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우리가 숙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숙고하기 위해 지난 일을 되돌아봅니다.

몇 년간을 통해 회상하는 우리 삶의 사건과 달리, 우리 회는 수세기에 걸쳐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사건을 기념합니다.

아시시 순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지난 100년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시에서 멀지 않은 바스티올라 묘지 경당에는 1912년이라고 적힌 명판이 있습니다. 성 클레라가 종려주일에 가족을 떠나 당시 산 파올로 수도원에 도착한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12년 성지주일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8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아버지와 주교 앞에서 옷을 벗은(1206) 프란치스코의 "강탈"을 기념했습니다. 2009년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회칙 구두 승인과 형제회 설립(1209)을 기념했고, 2012년에는 글라라의 회개(1212년)을 기념합니다. 2017년에는 돛자리 총회(1217) 기념이 있었고, 2021년에는 3회(1221)를 시작한 성인의 편지를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행사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열릴 1223년부터 1226년까지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주요 이정표를 기념할 100주년 행사에 비하면 작은 기념에 불과합니다.

올해 2023년에는 인준받은 회칙과 그레치오에서의 성탄(1223)을 기념합니다. 내년 2024년에는 라베르나에서의 오상(1224)을 2025년에는 피조물의 노래(1225)를 기념합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의 부활이라고도 불리는 성인의 죽음과 전이(1226/2026)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들은 교회의 2025년 대회년과 맞물리게 됩니다.

앞으로 글들을 통해 성인의 삶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